

누가복음 3장을 펴봅시다.

누가가 3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침례요한의 사역을 시작한 날자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이 언제 그의 사역을 시작했었는지를 말해주는 여섯개 이상의 역사적 참고가 되는 시점을 사용합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열 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3:1).

“분봉왕”이란 말은 사분의 일의 통치자 라는 뜻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을때 그 지역의 통치를 남겨놓았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사 등분해서 그의 세 아들에게 주어 통치하게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은 사분의 일을 다스리는자였고 빌립은 이두래 의 분봉왕 이었으며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 이었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3:1-2).

이것들이 역사적 시점으로 참고가 되는것입니다.

우리는 디베료 가이사가 주후 13-14 년에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린지 15년이 되었다면 그것은 주후 29 년으로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한 해 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것은 여기에 두 대제사장들의 이름인 안나스 와 가야바 를 적어놓은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한 제사장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AD 13-14 년에 대제사장 이었으나 로마 정부에 의해 교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로마 정부가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다른 세 사람을 대 제사장으로 임명 했던것입니다. 가야바는 로마에 의해 임명되었고 반면에 안나스는 백성들이 인정하는 대제사장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 지도자 였고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그는 로마의 정치가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두 대제사장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고 다른 한사람은 로마 정부에 의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명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체포했을때 그를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권력 있는자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야바는 형식적인 대제사장 이었고 실권은 나이가 많은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실제로 안나스의 사위 였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은 헤롯 아그립바 였으며 잠시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2).

요한에 대하여는 벌써 소개했습니다. 그는 늙은 부모에게서 기적적으로 탄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까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사는 메시아의 앞서 갈자가 될 아이의 탄생에 관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이제 AD 29 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3:3-4).

그 당시에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때 항상 시종드는 하인들을 왕보다 먼저 앞에 보내어 사람들에게 “왕이 어느 어느날 방문하실테니 그지역을 깨끗하게 청소 하고 왕이 오실 길도 수축하시요” 라고 알리게 합니다. 왕이 오실때 모든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주변이 깨끗하며 길도 잘 수축되어 구멍도 없고 모두가 평안한줄로 알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수종드는자였으므로 사람들에게 “왕이 오시니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3:5).

왕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3:6).

이것은 요한이 백성들에게 한 약속 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준비될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람들이 개심하려고 당신의 교회로 온다는 것을 알린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목소리 같이 들리죠? “당신들은 죄인들이야. 잘 알잖아” 로메인은 우리의 요한 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8).

그것이 회개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진정한 회개를 보이세요. 단순히 침례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만이 아니라 당신의 행실에서 변화된 삶을 볼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정적인 순간 흥분하여 그들 자신의 죄와 과거를 청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달라 질꺼야, 나는 행동도 잘할꺼야. 내가 약속 하마. 하나님 앞에서 맹서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될꺼야” 라고 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요한은 “그 열매를 보여라. 네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라” 고 말합니다. 그는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자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영원하리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들 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지극히 중요한것 이었습니다.

실상 예수께서 그들의 생활방식에 대하여 도전하셨을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에 의존 하면서 그 언약을 인식하고 “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들이 살아가는 생활방식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고 나는 그 언약 아래 있으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는 참된 회개, 변화된 생활과 변화된 행동을 요구 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3:9).

침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 열매를 보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3:9-10).

질문들에 대한 요한의 대답을 보면, 그가 사회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하고 (3:11-13).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가로 징수한 세금이 그들의 임금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데 특정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본래 세금에다 자신의 월급을 덧붙여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리를 지극히 미워했습니다. 오늘날도 세리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세금은 항상 괴롭히는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 고 말합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3:14-17).

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야 인가?” 하고 생각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메시야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이가 그의 뒤에 오시며 그가 메시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것이라고 대답 했습니다.

성령과 불의 침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 결과로 불의 침례라고 규정짓는 열광적인것을 많이 봅니다. 만일 한 설교자가 그의 설교에서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낼때 그의 멧세지에 그의 폐활량을 최고로 높여서 소리를 지르고 빠르게 말하며 공기를 들이 마시고 손을 흔들어 대면서 손가락질을 할뿐만 아니라 몸짓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아, 진실로 그는 불을 받았다” 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아마 인간의 불일수는 있습니다만 성령의 불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나쁜 형태의 연출을 봅니다. 그것들은 난폭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오, 저들이 정말 불을 받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 부터 온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항상 깨끗케 하며 정결케 하는 불 입니다. 소리를 지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목적은 찌꺼기를 제거 하는것이 목적이기때문에 성령의 불이 당신의 마음에서 탈때 감격의 소리보다는 오히려 아픔의 비명을 지를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볼때 그가 불로 침례를 준다고 말할때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타작 마당 입니다.

키는 크고 넓적한 삽으로서 그것으로 밀을 떠서 공중에 던집니다. 그러면 바람에 쭈정이는 날라가고 밀은 타작 마당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밀을 타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을 기다렸다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 갑니다. 키라고 하는 크고 넓적한 삽으로 밀을 퍼서 바람에 날립니다. 그러면 쭈정이는 바람에 날라가고 밀은 마당에 떨어 집니다. 밀 앞에서 겨가 분리될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난후 그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청소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실로라는 곡창에 넣지만 겨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것입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는 시편 1 장을 던지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복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것은 정화하는 모습이며 밀에서 겨를 분리시키는것입니다. 순금에서 찌꺼기를 분리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령과 불의 침례가 무엇이라고 설명되었는지를 살펴 보는것이 가장 합당 합니다.

또 기타 여러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3:18-20).

헤롯 안티푸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의 하나이며 그의 동생 빌립은 북부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었으며 그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 부인이 많았으므로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중의 하나에게 헤로디아 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있던 헤롯이 자기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헤롯 안티푸스가 로마에 갔고 헤로디아를 결혼 하자고 유혹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헤롯의 형제는 버려두고 그와 결혼하여 갈리리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헤로디아가 한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의 남편인 의붓삼촌을 남겨 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푸스의 의붓 제수가 되며 또한 의붓조카였으나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의 아내가 조카 이며 제수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담대히 그의 비행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가 지도자에 반대하는 말을 한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의 성격대로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당신이 행한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3:21),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 보다 예수의 인간적인면을 더 많이 보여 줍니다. 요한은 다른 어떤복음서 보다 하나님의 신성을 더 많이 보여 줍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의 인성을 지적합니다. 누가가 예수의 인성을 조심스럽게 지적하므로 또한 예수가 기도하고 있었던곳도 조심스럽게 참고로 지적합니다. 어떤일들이 일어났을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여러가지 경우를 들어 언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벌써 결정된 것들 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기도 생활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 보다 더 예리한 시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이 처럼 그는 예수의 본성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 하기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직 누가복음 에서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때 주님은 기도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 합니다. 그가 침례를 받으실때 그는 기도 하고 있었으며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3:22).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를 를 보게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실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 하노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라고 알려진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들은 “연합 오순절과”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남부지방에 많이 있고 특히 아리조나주에서는 “연합 오순절 교회” 또 어떤이들은 더 긴 이름인 “예수의 이름안에 있는 연합 순복음 교회” 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도 사용 합니다. 그들의 교리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성령이시며 또한 성자이시라고 믿으며 오로지 한분 이신 예수, 즉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믿는것입니다. 특별히 이구절을 그들에게 말해주면 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테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때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 하는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고 말씀 하셨을때 예수께서는 복화술 (주: 입을 움직이지 않고 음성을 내어 음성이 밖에서 오는것 처럼 들리게 하는 화술) 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이 구절로 인해 그들 자신을 위한 함정을 팔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가끔 한번씩 놀려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함정을 파는것을 봅니다.

이때 예수는 30세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은 얼마동안 침례를 주었을 까요? 성경이 그것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3:23),

여기 있는 족보는 분명히 마리아의 족보이지 요셉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요셉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서 내려와 다윗을 거치고 다윗에서 솔로몬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 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예수로 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까지가 아니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 갑니다.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는 똑 같은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에는 솔로몬을 거쳐 내려 오기보다는 솔로몬의 형 나단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헬리의 사위인 요셉에 이릅니다.

왜 예수의 두 족보가 서로 다른지? 만일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요셉의 족보를 기록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동정녀 마리아 에게 탄생 하셨다면 마리아의 족보는 이해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간에 족보는 그 사람의 생애에 관한 귀중한 증거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특별한 목적은 메시아를 세상에 오시게 하는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세우실때나 율법을 주실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언약에 그들의 민족을 타 민족으로 부터 잘 보전 하며 다른 족속과의 혼인을 금하라는 내용을 포함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부터 다윗을 거쳐 메시아에 이르는 혈통을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자는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 인 것과 다윗의 후손인것을 증명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들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항상 왕위에 앉는자가 영영히 끊어 지지 아니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가리켜 말씀 하신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출처를 증명 할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빌론의 포로생활에서 돌아왔을때 “우리들은 레위족속인고로 제사장으로 섬기겠노라” 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다, 너희들의 족보를 보여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족보를 내어 놓을수 없었습니다. 그 족보들을 바빌론에서 잃어 버린것입니다. 그들이 레위족속임을 증명하는 족보를 내어 놓을수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허용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족보를 가져 올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들이 레위 족속임을 증명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관리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족보는 어느 가정에서 또 어떤 혈통에서 왔는지를 증명 하기 위한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것입니다.

오늘날 메시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장 기권해야 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들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 이니라” 고 말하면서 오는 어떤이 들은 그들의 주장을 증명할 능력이 없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거슬러 올라가면서 증거할만한 족보 기록이 없습니다.

왜 요셉의 족보가 필요 합니까? 차이점을 목격하셨다면 요셉의 족보에는 왕의 계승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 진것입니다. 왕의 혈통이 솔로몬에서 예수까지 내려왔으며 예수는 요셉의 양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 할수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수는 솔로몬의 형인 나단을 거쳐 마리아의 아들로써 요셉의 입양된 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마리아를 거쳐 다윗의 후손으로서 합법적인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양 아들로써 왕권을 물려 받은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 기록된것처럼 유다 왕들의 말기에 여고니야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저주 하셨고 하나님이 여고니야에게 내리신 이 저주는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레미야 22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여고니야에서 부터 왕권은

끊어 졌고 그의 자손들중에 아무도 왕위에 앉지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의 후손이 왕위에 앉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족보를 읽으면 요셉이 여고니야의 후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위에 앉을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여고니야의 후손으로 요셉의 실제 아들이 아니라 양자 이었지만 다윗과 나단을 거친 마리아의 아들로써 다윗 가문의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요셉의 장자로서 왕위를 취하여 왕위에 앉을수 있었지만 그는 여고니야의 씨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족보를 넣어서 예수께서 요셉의 입양된 양자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보좌에 앉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정녀인 마리아 의 아들이기때문에 그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으나 우리가 이 이름들을 일일이 살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것은 족보가 인류의 첫조상 아담까지 올라가는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유대족속에 관련 지었고 누가는 예수를 온 세상과 관련 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것 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와 친척 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 혹은 이방인이라 밝힐수는 있겠지만 예수께서는 근본적으로 아담으로 부터 왔으며 우리 모두가 그와 친척이 되며 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수 있습니다.

Chapter 4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4:1),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 부터 침례를 받으신후에 요단강으로 부터 돌아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1),

유대 광야는 여리고 북쪽 15 마일 지점에서 부터 남쪽으로 사해 까지 뻗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언덕이라는 뒷편 까지 이르며 그곳은 대단히 황폐하고 아무것도 나지않는 유대광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량은 일년에 1 인치 정도 입니다.

파이크 (Pike) 주교가 역사적인 예수를 찾다가 죽은곳도 이곳입니다. 그곳은 대단한 황무지이고 사람이 없는 적적한곳 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온도가 빈번히 화씨로120 내지 125도 까지 올라 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4:2).

장기간 동안 금식해 본사람들은 알겠지만 5 일후에는 강한 식욕이 떠나고 실제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삼일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말할수 있는것은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눈에 핏색이 썬대이 (초코렛으로 만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종류) 와 딸기 케익이 눈에 아롱거리기 시작 합니다. 그러나 5일만 지나면 배고픔이 사라지고 기아로 인해 죽을때 까지 배고프지 않을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면 40일간 음식을 먹지 않고도 견뎌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후에 배고픔이 한번 오면 음식을 먹는것이 중요하며 천천히 금식을 중지 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40일 금식후에 큰 만찬을 한다면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것을 감당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이 14일간 금식 했다면 14일동안에 걸쳐 회복해야 합니다. 반컵의 주스와 반컵의 물로 섞어서 천천히 몸에 음식과 영양소를 다시 몸에 받아 들이면서 금식을 중지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갑자기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을 해칩니다. 그로 인해 죽을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감당 할수 없기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금식을 갑작스럽게 중단함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가서 많은 양의 음식을 먹기때문입니다.

예수께서 40일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금식 하신고로 이제 배가 고팠습니다. 그것은 주려죽는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3),

헬라이어에서 는 ‘만일’ 이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가정법 으로 쓰여 졌다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하는것 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므로” 라는 의미 입니다.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질문을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고로” 라고 하는것입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3).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네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 하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유혹은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치부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악용하는 유혹에 빠져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축복을 위하기 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에게 이렇게 하라고 제시하며 물질이 더 좋은것이며 가장 중요한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제안을 거절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4:4),

물질적인 삶이 가장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니라 (4:4).

예수께서는 끝까지 영적인 삶이 물질적 삶보다 우수하다고 강조 하시고 또 선언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주장이며 영적생활이 물질 생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수한것을 말해 줍니다. 또한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오늘날의 세상이 물질적 삶이 더 우수하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인본주의가 서로 싸우는것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서 외친 메시지, 즉 영적인 삶이 가장 귀중한것이라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가졌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물질적 삶이 가장 중요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더욱 심해지지만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선언입니다. 영적인 삶의 우수성이 물질의 영역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 입니다.

사탄은 여기에서 영적인것 보다 육체적인것의 우수성을 주장합니다. 영적인것을 취하여 물질적인것을 생산하라. 몹시 배 고프데니, 영적인 권능을 사용하여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라. 그랬을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영적인 삶의 우수성이 물질의 영역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 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4:5).

예수앞에 천하만국이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가이사 가 로마의 왕좌에 앉아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존귀와 영광을 가졌습니다. 하인들이 엎드리며 맛있는 진미의 음식들을 바치는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앞에 많은 청중들이 있는것도 보았고 그가 보좌에서 사용하는 권력도 보았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4:6).

언제 그것을 사탄에게 주었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때 사탄에게 넘어 갔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대한 권리를 사탄에게 잃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롬 6:16). 그러나 사탄의 제안에 굴복했고 사탄의 제안을 순종 할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굴복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구를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그의 권력과 지배권과 제안에 따를때 지구의 지배권을 장악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지구를 만드셨을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 하시고 이 지구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선물로 주셨던것입니다. 그때의 지구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도 오염되지 않은곳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탄에게 굴복하여 세상이 사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뒤바뀌어 인간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죠 “참 아름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 하는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사탄의 세계입니다. 사탄도 예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의해서 공부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리기 위한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지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이키려는것입니다. 인간들이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역으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며 이 목적으로 이세상을 구속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볼때 아직까지 하나님이 구속하신것을 볼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 대적함으로 일어난 결과를 우리 사회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것은 전적으로 잘못된것입니다. 그 재난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 하시는것을 반대하는 인간들의 전적인 반역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명도 이해도 할수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다스리며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보라,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을 내게 주었고 내가 가졌으므로 누구에게든지 줄수 있다” 라고 말했을때 예수께서는 반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실상 예수께서는 그것이 사실인것도 아셨고 그가 오신것은 그것을 사탄에게서부터 빼앗기 위한것입니다. 십자가에 가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값을 치루셔서 세상을 구속 하시기 위한것 입니다. 구속의 값은 피를 흘리는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구속 하려고 십자가에 가려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인간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 지는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사탄이 제안 하는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벗어날수 있다는것 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구속하기로 규정하신 그길을 가야할 필요가 없다. 나랑 흥정하자. 십자가를 거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네게 줄게. 단지 한가지 걸림돌, 사탄에게 절하는것 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그에게 옆드려 절하면 그는 사탄의 종이 되는것이며 모든것이 사탄의 권력 아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탄에게 절함으로 인하여 그는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권위에 굴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마. 네가 보좌에 앉게 되고 또 다스릴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며 내게 절해야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 하셨습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4:6).

계시록 13장에 있는 사실, 즉 짐승이 나오는 장면에서 사탄이 죄인에게 그의 권능과 보좌를 주리라 는것 을 보면 세상이 아직까지 사탄의 지배아래 있는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것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사탄은 아직까지 그가 기뻐하는자들에게 통치하는 권력을 나눠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자에게 줄수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허용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놀라운 권능을 가졌으며 세상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 줄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구의 부동산 권리증서를 가지고 오실것이며 천사가 이렇게 선언 할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계 11:15).

그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개인적 생각에는 그 일이 멀지않아 일어 나리라고 믿어집니다. 사람들은 타락할만큼 타락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한번 인류의 역사를 반드시 중재하셔야 할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볼때 이전에도 중재하신적이 있습니다. 바벨탑에도 중재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여 자기들이 원하는것을 할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그런 형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즉 이단종파의 능력을 통하여 권력에 놀라운 진보가 있을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할 그런시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극히 강한 유혹을 예수앞에 놓았습니다. 지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죽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네가 죽지 않아도 돼. 내가 그걸 네게 줄게. 그냥 내게 옆드려 경배 하기만 하면돼” 라고 말합니다.

세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가 거기서 뛰어내리기를 제안 했습니다. 또한 성경 구절도 인용 했습니다.

사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는 부분을 삭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반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눈에 띄는 몇가지 중요한점을 빼어 버리는것엔 도사입니다. 기록 되었으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4:11).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는 높은 성전의 꼭대기 에서 뛰어 내림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뿐히 뛰어내리라는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과연 네가 메시아인것을 진정 알리라. 그리고 그들이 서서 너의 놀라움을 경외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4:12).

한 이주전에 마가복음을 끝낼때 믿는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기록된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께서 말씀 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 리라”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또 다른곳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에 적용 됩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고의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하지 말아야합니다. 예수께서는 고의적으로 자신을 위기에 처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인것을 증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군중들에게 장엄한 장면을 만든다든가 천사들이 저희의 손으로 그를 받들어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구절을 취하여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진짜 신자임을 보여 주기위하여 독약을 마시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던 선교사 몇분을 압니다. 또 내가 아는 어떤 선교사는 말라리아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매우 갈증이 심해 무엇인가를 마셔야 했을때 유독한 늪에 있는물을 마셨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밖에 나가서 고의로 위기를 만드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 하는것 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4:13).

예수께서 돌아 오셨으나 마귀는 잠시 그를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4:14).

예수께서 4장에서 부터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성령충만하여 돌아옵니다. 예수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그에게 권능 을 주시는것

이었습니다. 우리도 신도로서 마찬가지로 성령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 하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특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 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에서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도로서 예수께서 성령과의 관계를 가지셨던 처럼 우리도 똑 같은 성령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성령 충만케 될수 있고 성령의 인도 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4:14-15).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특별히 이시기에 갈릴리 지역에 총독이 있었으며 인구가 10,000 명이 넘는 204개의 도시가 그의 관할아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으며 그곳은 인구가 상당히 밀집된 지역으로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의 인구는 3백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3백만명이 갈릴리 지방에 살았다 는 것은 물론 요세푸스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전체의 총 인구는 약 6백만 이며 대부분은 텔-아비브 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갈릴리 지방의 인구는 약 50만 이하 일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당시에는 그곳에 3백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었고 그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세상에 내가 즐겨 살수있는곳이 있다면 그곳은 갈릴리 바다의 연안일것입니다. 그곳은 너무나 아름답고 나는 그곳을 즐깁니다. 그곳엔 더운 여름철도 있지만 호수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수상 스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실상 갈릴리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톤의 과일을 기르는것이 한 아이를 기르는것보다 쉽다고. 그 지역에서는 과일을 많이 생산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자랐던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 갔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곳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그것이 그의 습관 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4:16).

이것은 그가 개발한 습관 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4:17).

물론 모든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고 그들은 두루마리를 회당안에 있는 보관소에 간직 하며 그것을 꺼내가지고 와서 펴니다. 그들이 두루마리의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두루마리에서 특정한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회당에서 경배할때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매년 이 특정한 날에는 이런 특별한 성경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4:17-20),

사역자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는 중 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두루마리를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는 한 동료 일뿐입니다.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4:20).

그가 앉았을 때 그것은 그가 가르치기 시작하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입니다. 랍비가 가리칠 때 그는 항상 앉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을 때엔 일어 섭니다. 그러나 읽고 나면 자리에 앉습니다. 그것은 그가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특별한 구절을 찾았고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야에 관한 예언을 읽었습니다.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혜를 전파하러 함이라.” 이것이 메시야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돌아가 보면 그는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의 중간에서 중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메시야의 사역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 다. 그 이유는 메시야가 두 번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가 재림 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과 그 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해 줍니다. 그것은 예수의 재림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읽은 부분은 그의 초림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그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그의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가 “여호와와 그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라고 말하면서 책을 덮었다는 것은 지극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침례 요한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재미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실제로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회개 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길을 곧게 하라.” 그들에게 부담은 주었으나 복음은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이 영광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까지 온 것입니다.

이후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한참동안 갇혀 있은 후 그는 예수에 관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헤롯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 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야 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바꾸어 말하자면 “왜 그렇게 오래동안 지체 하십니까? 나는 이 감옥이 지긋지긋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 많은 장님들과 불구자와 가난한자들이 예수께 왔습니 다. 그는 저희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눈도 회복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돌아가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이 이다’” 라고 직접 대답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요점은 자신이

증거하는것 보다 “나의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한다” 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메시아가 해야할 일들이었습니다.

그후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것을 믿지 않는도다. 그렇지 않거든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말로 인해 믿지 말고 내가 메시아의 일을 보여준것으로 인해 믿으라. 내가 행한것은 성경에 기록된대로 메시아가 할일, 즉 눈먼자가 보게되고 저는자가 걸으며 가난한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것을 보였노라. “ 이 모든일들이 증거요 이일들이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 이심을 증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책을 덮어 그 맡은자 에게 준다음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했습 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4:21).

그것은 전광 석화 같은 순간 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을 읽고난후 책을 덮었을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임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될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다음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 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이루어졌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하실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인이여, 좋은 소식이 있노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것을 깨닫는 감격 스러운 그 순간을 상상 해 보십시오. “와, 그것이 바로 이거야. 그분이 바로 그로라.” 예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역이 여기서 시작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 (4:22).

그들이 예수를 아는 고로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4:23).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감격 스러운 일을 행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서도 그것을 행하십시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 해 여섯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4:24-26).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은 철저히 국가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 당시의 책들을 보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뿔감을 위하여 창조 되었다고 유대인들은 가르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강한 국가주의 의식을 가졌으며 그 생각은 심지어 구원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는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역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몇가지 지적하기 시작 했을때 그들은 대단히 화를 내었습니다.

3년 반의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있었던 엘리야 시대에 흉년중에도 엘리야의 도움으로 연명하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렙다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밖에 사는 과부로서 엘리야가 방문한 과부는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4:27).

오, 그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의 피를 끊게 하기에 충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돌보시며 다른 사람들은 상관 안하신다” 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4:21).

그들이 예수를 낭떠러지까지 끌고가서 밀쳐 내리 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4:30).

예수께서 실제로 그들의 눈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4:31-32).

그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설교하려고 할때엔 “랍비 힐렐이 말씀 하시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정부의 공무원 같아서 권위 있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떤것에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허가를 맞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당하면 그것은 내가 책임 져야하며 정부를 상대로 일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당시에 누구든지 말할때엔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또는 “그가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것을 들었노라. 너희가 이렇게 말한것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권위 있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것을 들어 보지 못했고 그가 권위 있게 말하는것에 놀랐습니다. 그가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그의 가르침에 놀랐던 것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4:33-34).

귀신들도 그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 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4:35-36).

그 당시에 그들은 귀신을 쫓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지 못할 의식을 거행 하였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가락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 내기 위하여 이러한 긴 의식을 행하며 하찮은 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귀신들에게 명하시때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그랬을때 사람들은 “잠깐만 기다려,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4:37-38).

시몬은 결혼 했고 그의 장모도 있었습니다. 흥미 있는것은 사도들의 아내에 관한것은 전혀 언급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잠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잠잠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아내들에 관하여 성경이 잠잠한 것에서 우리는 아무런 추측도 할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등 국민이었던가 등등의 추측은 완전히 잘못된것 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에 관해 잠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성경이 잠잠할때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적이 몇번이며 성경의 잠잠한 부분에 대하여 책을 쓴적이 몇번입니까. 성경이 어떤 특정한 부문에 관하여 잠잠 하기때문에 사람들이 추측하고 결론을 내리는것은 전부가 추리하는것이며 무엇이든지 그런 추측은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들어 아팠다는 사실 외에는 베드로가 확실히 결혼 했는지 알지못합니다. 이제 이것은 헬라어의 의학 용어 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따라서 그 여인의 상태를 진단한것을 헬라어의 의학용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예수님 에게 왔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그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음) 수종드니라 (4:39).

이것은 어머니가 통상 하는것처럼 먹을것을 만들어서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좋은 어머니들이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는것을 말합니다.

해 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줄 앎이러라.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4:40-44).

인구가 10,000명 이상되는 도시가 204 개나 거기에 있었으며 204 도시를 한바퀴 돌면서 갈릴리 일대를 거쳐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5장과 6장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 하시며 아름다운 한주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압력을 덤으로 받고 복잡한 주차장에서 밀치고 받치고 정신을 잃게 되는 성탄 이라는 어려운 절기에 들어가는 이때 주님이 우리를 냉철하도록 지켜 주시고 성탄의 진정한 정신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대를 따라가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로 동행하며 그의 사랑안에 거하여 어둔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